



열린정부파트너십(OGP)
10주년: 민주적 도약을 향해

핵심 요약서



2011년 8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 9명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을 출범했을 때만 해도 지금의 규모와 범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부와 수천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78개국에서 300개 가량의 국가 실행 계획을 통해 4,500 개 이상의 활동성과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활동 성과 중 수백 개는 개방에 점점 더 적대적인 세계 정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미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활동 성과 뒤에는 개혁자와 개혁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 개혁을 종합해보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 성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민주적 도약을 위한 씨앗을 제공합니다.

성장 방향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분야의 개혁가들의 기여와 헌신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회원,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자들의 다양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출범 이후 회원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8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파트너십으로 시작하여 2018년까지 78개국 정부 회원들로 확대되었습니다. 파트너십은 현재까지도 지방 정부 프로그램의 확장 덕분에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76 개의 지방정부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프로세스와 활동 성과는 점점 더 다양한 부서와 행정체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집행부의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다른 부서에서도 항상 상당한 활동 성과가 있었습니다. 입법부, 사법기관 및 하위 국가 정부 기관이 행정부의 남용에 대한 견제와 혁신을 위한 실험실의 역할을 하는 등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참여 방법은 점점 더 포괄적이며 공평해지고 있습니다. 실행 계획을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프로세스의 다양성을 증진했으며 거버넌스의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두는 공약의 개수를 현저하게 증가시켰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모델

열린정부파트너십(OGP) 모델은 시민사회와 정부의 구체적이고 야심 찬 공약을 통해 2개년 실행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공약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구현되며, 전 세계 파트너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독립적인 보고 메커니즘을 통해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더 열린 정부, 더 나은 정책이 및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플랫폼이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가입:** OGP 가입 자격을 얻기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 공개 정부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OGP 회원 자격은 2018년 모로코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보이용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OGP의 자격 기준에 따르면 비민주주의의 국가는 가입을 불허 하고있습니다.
- **실행 계획 :** 실행 계획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강력한 실행 계획과 결과를 창출해냅니다. 한편, 공약은 더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열린 정부 실행에 있어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 **실행 계획을 넘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새로운 네트워크 및 동료 학습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개혁을 선보이며, 높은 수준의 글로벌 공약의 국내 이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여러 회원국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회원이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과정을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

정책 영역을 통한 진전

상기에 서술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프로세스는 개혁가들이 다양한 정책 영역에 걸쳐 민주주의를 갱신하기 위해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이러한 개혁은 열린 정부를 가능하게 하며, 국민과 시민 사회가 선거 당일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 10 년간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회원들은 수십 가지의 정책 분야에서 공약을 걸어왔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네 가지 주요 개혁 클러스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소유자 등록부를 만들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부패와 싸울 수 있도록 기관을 개방할 것을 약속합니다. 개방형 재정 정책은 시민사회단체가 자금의 수익과 예산에서 지출과 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십대들이 공적 자금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공 계약 등록부의 데이터를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국민들을 참여시켜 공공 정책과 서비스를 구체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에는 더 나은 투명성과 심의 및 책임소재 파악을 통하여 물, 의료, 교육과 같이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접근성이 또한 포함됩니다. 회원들은 환경 관리 및 천연자원 사용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실행 계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에서는 개혁가들이 자국의 첫 실행 계획을 환경 운동가들을 보호하고,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며, 사법에 대한 접근을 위한 지역 조약인 에스카주 협정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불평등을 해소하며, 이는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에서는 정부와 활동가들이 평화 시위 중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여성인권단체들이 실천계획을 통한 보다 적절한 있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코틀랜드가 불평등에 대한 국가적 심의를 수행한 것처럼 국가 포획을 통제하고 연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더욱 더 탄력적인 민주주의, 하위 정보 퇴치, 사생활 보호, 불법적인 정치 자금 금지, 거대 기술에 의한 남용 억제, 미디어 환경을 강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약속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정부의 부적절한 감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폭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이 감시 사용에 대한 감독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상황과 열린 정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과 열린 정부를 위한 지난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15년간의 시민의 자유 쇠퇴 후, 민주주의의 쇠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과 선거 무결성이 악화하고 있으며 차별이 증가되어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국가는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국가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의 자유가 감소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헝가리와 같은 일부 국가는 파트너십을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국가들은 시민 사회 단체의 괴롭힘에 의해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중들의 시위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었고 세계 각국은 기후 해결책, 불평등, 그리고 헌법 개혁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OGP

앞으로의 방향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몇 가지 남아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모델이 설계된 대로 사용될 때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출범 10년 간 개선되거나 감소하지 않은 세 가지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향력 확산: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공약들은 각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반적인 포부의 수준이 약간 낮아진 것이 확인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야심 찬 공약이야말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가장 가능성이 큰 공약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공동의 관심과 자원을 얻을 가치가 있습니다.

- 2. 실행 확산:** 전반적인 실행률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몇몇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회원국 중 특히 저소득국들은 공약을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개 자원 부족과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파트너십 전반에 걸친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 지원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 3.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공공 책임, 시민권과 참정권, 그리고 정치적 청렴성 제고와 관련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책임을 다루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공약의 수는 약 5%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다루는 공약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드뭅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회원들은 자산 공개나 정치 재정과 같은 정치적 청렴성 제고와 관련된 영역을 다룰 예정입니다.

민주적 도약을 향하여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를 보다 개방적이고 참여적이며 더 책무성 있게 만드는 수백 개의 의미 있는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정치인, 운동가, 공무원, 국제기구 등 모든 국민들이 협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두가 이 실험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국제 파트너십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난 10년간, 그 실험은 결실을 맺었고,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렵게 얻은 변화를 위해 싸워왔고 정부는 어려운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정치적 엄호를 받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이득과 구체적인 기회를 가져다주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은 평범한 도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파트너십의 힘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더 완강하게 밀어붙이고 미진한 부분은 직면해야 합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전반에 걸쳐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씨앗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우리의 보건, 경제, 사회, 환경, 민주주의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합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힘을 키우면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 힘을 사용할 때입니다.



사진 제공: sinsy/iStock

개방의 상징이 된 대한민국의 심장

조선 시대 궁궐의 관문이었던 광화문 광장은 수 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었던 광화문 광장은 16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로 변모하였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공간은 2010년까지는 접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광화문 광장은 한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정신을 위한 시민과 문화의 주춧돌이자 열린 정부와 참여 민주주의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지속적이며 번영하는 사례를 보이기 위한 예시로서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2016년 10월, 주요 산업 이익으로부터 이익을 갈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의 일환으로 수만 명의 국민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반부패 노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촛불 집회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개혁 정권이 집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자적, 은유적 장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이 개선을 위한 건의와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화물 운송 안전에서 지방 자체 단체 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혁안을 제안했으며, 많은 부분이 정책과 실무에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 인터뷰에서 진영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광화문 광장을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경청하는 광화문 1번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의 국민들이 새 정부를 위한 인수위원회의 일원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국민들은 광화문 1번가라는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전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혁신과장은 2017년 새 정부 출범 직후 국민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전했습니다:

49일 만에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나 PTO [국민인수위원회] 임시 위원회에 무려 18만705건의 새 정부를 향한 정책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1,700개 이상의 우수 정책 제안이 정부 정책에 통합 적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촛불집회 이후 정부 정책 소통 플랫폼을 대면 참여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확장으로 제주시 제주중앙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 참여가 증가하였습니다. 제주시 제주중앙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연히 택배에 사용되는 일회용 아이스팩의 환경 유해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은 담임 김지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시장님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자 광화문 1번가 온라인 플랫폼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플랫폼 덕분에 김지은 선생님 학급의 아이디어는 정부 관계자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재활용 수거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손상된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부는 아이스팩 내용물에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해로운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하였습니다. 정부가 규제 정책의 최신 동향과 관련하여 김지은씨의 학급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OGP 실행 계획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소통 및 참여를 확장시켰습니다. 2018년 정부는 국민 의견 공유와 대외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열린 소통 포럼과 공공 외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정부의 최근 실행 계획에 따르면 위의 플랫폼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으며, "참여 민주주의 실현, 포용 국가로서 공공의 가치 추구, 정부 혁신을 통한 신뢰 쇄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GP의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전세계적인 혁신 및 한국 OGP의 비전에 통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선생님과 학생들에게도 이 과정은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본인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른이 될 수록 무관심해집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김지은 선생님의 학생들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원인에 대해 행동하고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더 많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김지은 선생님은 이러한 가치를 어린 나이 때부터 경험함으로써 이 학생들의 시민 참여가 평생동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유년기에서부터 경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국내의 열린 정부 활동가 및 정부 안팎의 개혁가들은 난이도가 높고, 재발이 잦으며, 점점 심각해지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변화무쌍한 광화문 광장의 의미를 통해 열린 정부가 최적으로 운영될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열린정부파트너십(OGP)가 개혁을 실행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www.opengovpartnership.org

10
YEARS

Open
Government
Partnership

